

# 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한 수준 확인

- 국내 유통 제품 240건 조사 결과 유해물질 우려 없어... 반복 소독 후에도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젓병, 젓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 '영·유아 대상 식품용 기구 등 안전성 평가 연구'(2025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젓병, 젓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 합성수지제 : 프탈레이트류, 비스페놀류, 납, 안티몬, 비소( $As_2O_3$ )

고무제 : 니트로사민류, 납, 아연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 납, 카드뮴, 니켈, 6가크롬, 비소( $As_2O_3$ )

이 중 젓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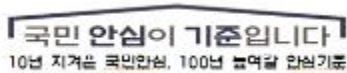
\* 열화: 열, 빛, 자외선 등으로 인해 고무, 플라스틱 등의 성능 등이 떨어지는 현상

참고로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는 만큼 소비자는 제품 구입 시 ‘식품용’ 표시를 확인하고 제품의 표시된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지켜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용기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담당 부서 <총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가물포장과	책임자	과 장	최윤주 (043-719-4351)
		담당자	연구관	최시원 (043-719-4353)
담당 부서 <협조>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	책임자	과 장	엄미옥 (043-719-2501)
		담당자	연구관	김형일 (043-719-2504)



□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p>젖병(PPSU)</p> 	<p>유아용 컵(PP)</p> 	<p>유아용 식판(멜라민수지)</p> 
<p>이유식 용기(PPSU)</p> 	<p>일회용 보관팩(PE)</p> 	
<p>과즙망(고무제)</p> 	<p>유아용 식판(고무제)</p> 	<p>유아용 그릇(금속제)</p> 
<p>유아용 컵(유리제)</p> 	<p>이유식 용기(도자기제)</p> 	